

제27차 정기이사회 주요 의사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11:00 ~ 13:00
- 장 소 : 달개비식당(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9명 중 8명 참석(대리참석 1명 포함)
- 참 석 자 : 김상헌 이사장, 임영웅 이사, 한태숙 이사, 안호상 이사, 김윤철 이사, 윤태봉 이사, 고희경 이사, 우상일 이사(대리:하현진 사무관)
- 특기사항 : 윤미경 사무국장(간사)

2. 보고사항

- 제26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 국립극단 2016년 주요 사업실적(2016.11.30기준)

3.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국립극단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의결결과

- 제1호 의안 : 국립극단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원안가결

5. 기타사항

- 제27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주요회의록

2016.12.19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 국립극단 제27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9명중 8명 참석하셨고, 감사님은 개인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 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극단 제27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안건은 지난 26차 임시이사회 의사록과 의결처리결과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26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설명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1호에 대해서 질문 또는 의의 있으십니까?

전체이사 : 없습니다.

이 사 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보고사항은 이대로 접수하도록 하고,
다음 보고사항은 국립극단 2016년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4~7쪽 '2016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보고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2에 대해서 질문 또는 의의 있으십니까?

안 호 상 : 금년 예산집행현황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은 반납금액이 있습니까?

간 사 : 작년까지는 국고불용액이 있었으나 금년은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안 호 상 : 국고는 전부 집행하고 자체는 약 20억원 이월되겠네요.

간 사 : 5쪽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집행예산 91억에서 12월 추가집행금액
까지 정리하면 자체자금의 예산 이월금은 약 13~14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전체이사 : 없습니다.

이 사 장 :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보고사항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전 사항>

이 사 장 : 제 1호 심의안전은 국립극단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안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0~22쪽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료 설명함.

김 윤 철 : 회의자료 11쪽 2017년 주요 공연작품에 대해 보완설명 함.

이 사 장 :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태 숙 : 우수창작·신작 개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작가들의 최근 신작이 소설 등 다른 장르의 작품인지, 아니면 전부 희곡인지요?

김 윤 철 : 전부 희곡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해외 한인작가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내년 발표하는 '재외한인작가전' 중 예를 들면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양아 출신의 '인숙 차펠'의 한국의 정체성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된 작품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영진 리'의 작품 등이 있었고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 호 상 : 희곡은 영문입니까?

김 윤 철 : 네, 영어로 되어 있어 번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국의 로얄코트에서도 한인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숙 차펠', '미아 정'의 작가들은 책도 출간됐고 공연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기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작가출신의 작가가 캐나다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인스 최'라는 작가였고, 작품명은 <김씨네 편의점>입니다. 이 작품이 캐나다를 투어하면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품이 어렵지 않고 아주 재밌습니다. 역시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5명의 작가들을 선정했습니다. 더 많은 작가와 작품들이 있었으나 이민국의 사정이 심하게 반영된 것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작품으로 5편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 장 : 재외한인전은 같은 시기에 공연이 되는 겁니까?

김 윤 철 : 내년 6~7월에 축제형식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김 윤 철 : 국립극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드리면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내년 폴란드와 초청공연 등을 교류 준비하고 있고, <빛의제국>은 프랑스와 스위스 공연 투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폴란드 국제연극제에 참가했는데 세르비아 관계자들도 <빛의제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초청을 하고 싶다는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빛의제국>이 3개국 정도 순회공연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로베르토 주코>는 내후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등 연계되어 유럽교류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국립극단 작품에 대해 많은 초청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준비해서 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문체부측에선 질의 없으십니까?

하 현 진 : 네, 없습니다.

이 사 장 : 2017년 예산(안)이 ‘문체부 승인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요?

간 사 : 인건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3%로 편성했지만, 추후 정부발표가 나면 그에 맞게 조정합니다.

하 현 진 : 임금은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도 임금 인상은 정해지는 지침에 따라 한꺼번에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극단도 그에 준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조정됩니다. 현재는 3%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김 윤 철 : 우리극단이 제안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극단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금이 낮은 관계로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합격통지를 받고도 보수가 맞지 않아 입사포기를 합니다. 극단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현재 처우와 심한 차이가 있어 포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충격이었던 것은

서울시 산하 체육공단위원회에서 근무한 직원이 같은 경력이라도 극단과 천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이직을 원해도 현재 받고 있는 보수보다 천만원정도 삭감이 되는 직장에는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번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장들과 간담회 때도 직원들의 인건비 처우를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립단체 직원들의 임금처우를 문체부가 혁신적으로 개선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현진사무관께서 적극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하 현 진 : 문화예술분야 직원들의 인건비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현실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 영 응 : 예산이 충분해야 작품의 질도 좋아집니다. 배우출연료, 작가, 스태프들도 사례비가 많지 않으면 성실하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국립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사례가 필요합니다.

김 윤 철 : 하사무관님의 적극적인 반응을 바랍니다.

간 사 : 극단의 사업비 규모는 통합을 계기로 안정화 됐습니다. 예술감독님 재임하시면서 많이 상향됐습니다. 시즌단원 처우도 좋아져서 2017년 시즌단원 모집에 어제까지 450명이 지원 하였습니다.

임 영 응 : 최근에 국립극단이 운영을 잘 하니까 많은 연극인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안 호 상 : 인건비 산출이 정규직 36명, 시즌단원 30명, 비정규직 21명 등인데 인건비가 33억 예산이면 평균 3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운영인력이 젊은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닐 텐데 평균 단가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너무 낮은 수치인 것 분명한 듯합니다.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간 사 : 무기계약직이 계약직 직원 중에 80%정도 됩니다. 설립당시 기본 임금구조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지속적인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안 호 상 : 문체부 산하 공연문화단체들의 임금 처우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 윤 철 : 단체장들도 모두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 현 진 : 인건비나 정원 증원이 제일 큰 화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제부처에서는 예산증액, 정원 늘려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축소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항상 예산 때마다 늘 큰 문제인데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 윤 철 : 경상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 민 희 : 작년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이 통합을 하면서 '16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경상비 집행을 점검하며 적정 실질예산으로 효율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장 :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예산(안) 관련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제1호 안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 진 : 이의 없습니다.

이 사 장 : 그럼 제27회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현 (인)

이 사 김윤철 (인)

이 사 임영웅 (인)

이 사 윤태봉 (인)

이 사 한태숙 (인)

이 사 고희경 (인)

이 사 안호상 (인)

이 사 우상일 (인)